https://doi.org/10.23073/igll.2026..22.016

# TV 드라마 속 무당 형상과 활용

## SBS 〈귀궁〉(2025)과 tvN 〈견우와 선녀〉(2025)를 중심으로

The Image and Application of Shamans in TV Dramas
: Focusing on SBS "The Ghost Palace(Guigung)"(2025) and tvN' "Gyeonwoo and the Fairy"(2025)

김호성•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국 대중매체에서 무속 소재 콘텐츠가 흥행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2025년 방영된 TV 드라마 〈귀궁〉과 〈견우와 선녀〉를 중심으로 무당과 무속의 서사적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한국형 오컬트 장르가 무속을 주로 공포나 퇴마의 이미지로 소비해 온 것과 달리, 두 작품은 무당을 중심인물로 내세워 새로운 대립양상과 무속의 본질적인 의미를 활용하고 있다.

먼저 인물 형상 측면에서 두 드라마는 무당의 '몸주신'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인 선한 무당이 몸주신(선신)의 도움을 받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신을 만들고 조종하는 '악한 무당(판수)'이라는 새로운 대립 항을 설정함으로써 선신과 악신, 선한 무당과 악한 무당 사이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대립 구조를 형성한다.

의례적 측면에서는 오컬트 장르의 서구식 엑소시즘이나 일방적인 퇴마(退魔)나 구마(驅魔) 대신 '천도굿'을 연행한다. 드라마 속 천도굿은 악귀를 단순히 제거해야 할 절대적 타자로 보지 않고, 그들이 품은 원한(怨恨)의 기원을 찾아 풀어주는 '해원(解冤)'과 '공감(Empathy)'의 과정으로 그려진다. 이는 죽은 자의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산 자와 죽은 자의 화해를 도모하는 무속 본연의 치유적 성격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귀궁〉과 〈견우와 선녀〉는 무당이라는 존재를 사회적 불안을 투영한 '사이코패스적 악인'과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공감의 주체'라는 양면적 존재로 형상화하였다. 본고는 두 작품이 무속을 단편적인 이미지로 소비하는 데서 나아가, 한국 무속의 고유한 정체성인 해원과 치유의 가치를 대중 서사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 문화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핵심어 무당, 무속, TV 드라마, 귀궁, 견우와 선녀, 몸주신, 천도굿, 해원, 공감

차례

1. 들어가며
2. 인물 형상과 대립 관계
3. 천도굿의 기능과 의미
4. 나가며

##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TV 드라마 속에서 무당과 무속을 어떻게 형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무당과 무속의 서사적 기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무속을 오컬트적인 요소로만 소비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무당이란 캐릭터의 상징성과 확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당과 무속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도 함께 확인하기로 한다.

최근 무속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작되던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www.kci.go.kr

가운데 영화 〈파묘〉(2024)와[1]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2025)가[2]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무속을 소재로 한 콘텐츠로서 이례적인 흥행 성공과 젊은 세대의 무속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 장르에서는 〈영매〉(2002), 〈사이에서〉(2012), 〈비단꽃길〉(2013), 〈만신〉(2014) 등 다큐멘터리 영화, 〈청담보살〉(2009), 〈박수건달〉(2013), 〈목스박〉(2024) 등 코미디 영화에서도 지속적으로 무속을 소재로 한 작품이 제작되었다. 그런데 최근 〈곡성〉(2016)과 〈파묘〉 같은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며 오컬트 영화의 소재로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무속과 무당은 핵심 소재보다는 이미지와 상징으로써 간접적으로 활용되다가[3] 최근에는 오컬트 영화의 소재로써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4] 서양과 일본 중심이었던 오컬트 영화에서 한국적인 오컬트 영화의 소재로 무속이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웹툰에서도 무속을 주요 소재로 삼아 수요층에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도 다수 존재하고, 이에 관한 연구도 상당수 진행된 바 있다.[5] 웹툰 〈신과 함께〉(주호민, 2010~2012)의 큰 성공 이후, 무속과 무속 신화를 소재로 한 웹툰이 계속해서 활발히 창작되고 있다. 무속을 소재로 삼은 웹툰은 대부분 영적인 능력으로 원귀나 악귀 문제를 해결하는 판타지적 면모에 집중되어 있다.[6]

TV 드라마 장르에서도 무속과 무당을 중심 소재로 한 작품이 다수 제작되고, 연구가 진행되었다.[7] MBC 〈왕꽃선녀님〉(2004)과 MBC 〈해를 품은 달〉(2012)에서는 무당이 중심인물로 등장하여 로맨스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되었지만, 근래에는 OCN 〈손 the guest〉(2018), tvN 〈방법〉(2020), OCN 〈다크홀〉(2021), SBS 〈악귀〉(2023) 등에서 오컬트적 요소로 활용되며, 대중적 주목을 받았다.

영화와 웹툰, TV 드라마에서 공통되게 무속을 한국적 오컬트 요소로 활용되고 추세에 2025년 한 해에 무당을 중심인물로 하는 TV 드라마 두 편이 방영되었다. 두 작품은 시기적으로도 유사하며, 오컬트 장르가 아니라는 공통점을 주목하여 SBS 〈귀궁〉과[8] tvN 〈견우와 선녀〉를 연구

1 영화 〈파묘〉는 국내 영화 흥행 순위 14위로 1191만 관객을 동원하였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도 크게 흥행하였다.

2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역대 모든 콘텐츠 가운데 누적 시청 수 1위, 최초 3억 조회 수 돌파, 빌보드 HOT 100 차트 1위 등을 기록했다.

3 신광철, 「무속 소재 영화와 무녀 캐릭터」, 『역사민속학』 18, 역사민속학회, 2004; 변안식, 「우리 영화: 무속을 통해 표출된 '한'과 '원'의 카타르시스」, 『영화평론』 17, 한국영화평론가협회, 2005; 김병선, 「김기덕 영화에 나타나는 무속적 상징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0, 한국언론정보학회, 2010; 신양섭, 「임권택 영화 속의 무속적 세계관」, 『한국학연구』 60,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7.

4 김주윤, 「한국무속의 영화적 재현: 역사와 시각」,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8; 조은아, 「한국영화 〈곡성〉과 〈사바하〉 속에 드러나는 오컬트의 장르적 특성」,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9: 유재응·이현경, 「한국 오컬트 영화 속 무당과 굿의 재현 양상 연구: 〈검은 사제들〉(2015), 〈곡성〉(2016), 〈장산범〉(2017)을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7,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윤준섭, 「무속의례 '뒷전'의 관점에서 본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한국문학과 예술』 40,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김지아,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영화 내 희생제의 서사의 변용과 한국형 오컬트의 무속적 재구성: 영화 〈파묘〉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87, 한국문학연구학회, 2025; 염원희, 「오컬트 영화 〈파묘〉의 무속의례 구현과 신명풀이적 성격」, 『한국학연구』 9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25.

5 강명주·이찬욱, 「무속 신화의 현대적 수용과 재구: 웹툰〈묘진전〉의 사례를 중신으로」, 『어문논집』 37, 중앙어문학회, 2018; 김진철, 「웹툰의 제주신화 수용 양상」, 『영주어문』 31, 영주어문학회, 2015; 박향아, 「〈신과 함께: 이승편〉에 나타난 서사무가 활용 양상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이명현, 「〈신화함께〉 신화편에 나타난 신화적 세계 재편」, 『구비문학연구』 40, 구비문학회, 2015; 유형동, 「웹툰 〈쌍갑포차〉에 재현된 무속신화적 세계인식」, 『문화와 융합』 41,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이경화, 「웹툰 〈어둠이 걷힌 자리엔〉의 민간신앙 활용 양상과 그 의미」, 『어문논집』 91, 민족어문학회, 2021.

6 이명현, 「서브컬처에 재현된 무속적 세계관: 웹툰에 나타난 무당을 중심으로」, 『2024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2024, 56~57쪽.

7 이정재, 「드라마 왕꽃선녀님과 현대 무속문화의 이해: 무속드라마 선호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속과 문화』 10,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2005; 변지선, 「대중매체에 나타난 무속의 문화콘텐츠 활용양상 연구: TV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대상으로」, 『문화와 융합』 37, 한국문화융합학회, 2015; 백소연, 「〈손 the guest〉에 나타난 악의 재현 방식과 그 의미」, 『어문논집』 80, 중앙어문학회, 2019; 염원희, 「한국 오컬트 드라마의 악의 재현과 대항의 논리: 〈손 the guest〉(2018)와 〈악귀〉(2023)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8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3; 윤준섭, 「함경도 무속신화 〈감천〉을 통해 본 TV 드라마 〈악귀〉의 의미: 유아살해서사와 민속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8, 국어국문학회, 2024; 김호성, 「드라마 〈미남당〉 속 가짜 무당의 형상과 의의」, 『한국무속학』 50, 한국무속학회, 2025.

8 드라마 〈귀궁〉에 관해서 강혜진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K-판

www.kci.go.kr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두 작품은 무당이 악신을 물리치는 서사, 악신을 만드는 존재와 대립 또한 공통된다. 두 작품을 중심으로 무속의 핵심 관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2. 인물 형상과 대립 관계

〈귀궁〉은[9] 가상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영매(靈媒)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巫女)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서는 이야기이다. 무녀 여리는 넙덕이라는 만신의 손녀로 어렸을 때부터 신을 모실 맑은 그릇을 지닌 세습무 집안의 아이이다. 그러나 넙덕이 죽고 신을 모셔야 하는 운명을 거부한 채 애체(안경)장인으로서 살아가던 인물이다. 그러던 중 어렸을 적 첫사랑이었던 검서관(檢書官) 윤갑의 요청으로 궁궐로 향하던 중 윤갑은 반대 세력에게 살해당하고, 이무기 강철이 윤갑의 몸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윤갑으로 살아간다. 무녀 여리와 윤갑에 빙의한 강철이는 왕가를 헤치려는 팔척귀를 천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견우와 선녀〉는[10] 동명의 웹툰 〈견우와 선녀〉를[11] 원작으로 하며, 여고생인 선녀보살 박성아가 죽을 운명인 배견우에게 첫눈에 사랑에 빠져 그를 해치려는 악귀를 막는 이야기이다. 선녀보살 박성아는 어렸을 적 신이 내려 가족에게 버림받고 동천장군이란 별호의 신어머니 밑에서 무업(巫業)하면서, 평소에는 무당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고등학생이다. 어느 날 점사를 보던 중 배견우가 거꾸로 걸어서 들어와 삼칠일(三七日) 후에 죽을 운명임을 알게 되지만 첫눈에 사랑에 빠져 삼칠일 간 자신이 지켜주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다 배견우에게 악귀가 빙의되어 악귀를 천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두 작품은 조선 시대와 현시대로 시대적 배경은 다르나 인물의 형상이나 대립 관계는 매우 유사하다. 두 작품의 중심인물이 어려서부터 신기가 있는 여성 무당이란 점이 동일하다. 〈귀궁〉의 여리는 처음에는 악신으로 오해하던 강철이를 몸주신으로 모시고,[12] 〈선녀〉에서는[13] 선녀보살을 몸주신으로 모신다. 무당이 단순히 귀신을 보거나 예언을 하는 존재로만 그려지지 않고, 몸주신을 모시며 여러 종교 의례를 행하는 종교의 사제자로 그려진다.

두 작품에서 무녀들이 사랑하는 남성에게 다른 혼(魂)이 들어간다. 〈귀궁〉에서 윤갑은 이미 반대세력에 살해를 당해 죽은 몸에 이무기인 강철이가 들어가고, 〈선녀〉에서는 배견우를 해치려 했던 악귀가 들어가 두 영혼이 한 몸에 존재한다. 〈귀궁〉에서는 윤갑의 시체에 강철이가 들어간 것으로 빙의라 할 수 없고, 퇴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반면 〈선녀〉에서는 배견우의 몸에 악귀가 빙의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귀궁〉에서 처음 윤갑의 몸을 빼앗은 강철이가 악신으로 인식된다. 강철이는 용이 되기 위해 승천하다 인간 아기가 쳐다봐서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이다. 이 사건으로 강철이는 인간을 미워하고 때때로 농사가 잘 안되게 심술을 부리는 존재로 그려진다. 신을 모시는 그릇이 깨끗한 사람이 빌어주면 다시 용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무녀 여리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강요한다. 이를 거부하던 여리는 강

타지 장르라고 명명하며, 무속의 공감과 치유, 화려한 색감 등이 참신함과 익숙함을 동시에 주는 요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백소연은 〈귀궁〉을 오컬트 장르로 인식하였으나 역사와 로맨스가 결합된 복합 장르로서 서구의 구마 서사와 달리 악이 생성된 사회적·역사적 조건, 책임의 문제를 추적하는 것이 주요하게 다루어진 서사라고 하였다. 강혜진, 「〈귀궁〉, 〈K-pop 데몬 헌터스〉로 본 K-판타지의 무속 활용 경향」, 『Journal of Korean Culture』 70,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5; 백소연, 「폭력의 귀환과 기억의 윤리: 드라마 〈귀궁〉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113,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25.

9 윤수정 극본, 윤성식·김지연 연출, SBS 방영(2025.4.18~2025.6.7), 총 16부작.

10 양지훈 극본, 김용완·정우식 연출, tvN 방영(2025.6.23~2025.7.29), 총 12부작.

11 안수민 글·그림, 네이버 웹툰 연재(2020.2.3~2023.1.23), 총 156화.

12 이무기 '강철이'가 신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인식은 〈원천강본풀이〉과 〈산천굿〉을 비롯한 다양한 구전설화를 근간으로 한다(강혜진, 앞의 논문, 254~257쪽).

13 드라마 〈견우와 선녀〉 약칭.

www.kci.go.kr

철이가 자신의 할머니인 넙덕을 죽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주변에서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강철이를 몸주신으로 모신다. 여리의 할머니를 죽인 존재와 왕가의 사람을 죽음에 빠트리고 있는 존재가 팔척귀임을 알게 된다. 팔척귀는 전란 때 왕을 모시던 장수로서 왕에게 피난처로 자신의 마을을 소개했지만, 왕은 자신이 무사히 도망치기 위해 마을의 모든 사람을 희생시켜서 왕에게 큰 원한을 품고 악귀가 된 존재이다. 〈귀궁〉에서는 과거 전란 때 왕의 핏줄인 현재의 왕 이정과 세자에게 팔척귀가 빙의되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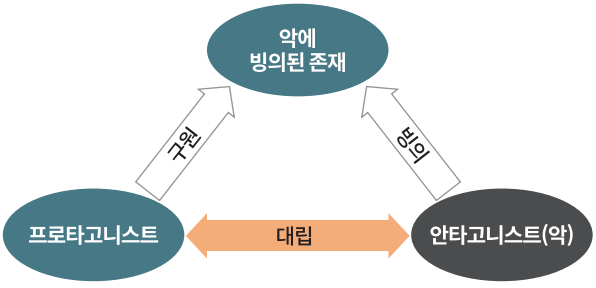
〈선녀〉에서 악귀는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인물로 생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어 원귀가 된 존재이다. 그러다 100명을 해치고 강력한 악신이 되려는 존재이다. 마지막으로 해쳐야 할 100번째 인물인 배견우의 몸에 빙의되어 잊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찾고,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더듬는다. 선녀보살 박성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배견우와 다른 존재임을 눈치채고 악귀에게 봉수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귀궁〉의 강철이나 팔척귀는 실제 기록이나 구전되는 이야기가 있는 존재들이다. 실제 전승되고 있는 명칭과 일부 특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선녀〉에서 원귀가 100명을 헤치면 악귀이 된다는 명확한 기록이나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생전 억울함이 강할수록 많은 해를 입히는 원귀가 된다는 민간신앙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두 작품에서 원귀를 만들거나 돕는 존재가 등장한다. 〈귀궁〉에서는 팔척귀를 몸주신으로 삼아 돕는 존재가 맹인 판수인 풍산이다. 풍산은 맹청(盲廳)의[14] 도상수로 궁궐을 오가며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과 팔척귀가 더욱 강한 원귀가 되도록 노력하는 인물이다. 천한 신분이었던 풍산이 강한 권력을 갖고 생존하기 위해 팔척귀를 모시고 온갖 나쁜 주술을 행하는 인물이다.

〈선녀〉에서는 염화라는 무당이 원귀에게 100명의 희생자를 바쳐서 악신을 만들고자 하였다. 염화는 원래 선녀보살 박성아의 신어머니인 동천장군의 첫 신딸이었는데, 자신의 아이가 죽자 죽은 아이의 영혼은 소유하고 싶어 악신을 몸주신으로 모시고자 하는 인물이다. 염화도 자신만을 위해 악귀를 만들고, 온갖 나쁜 주술을 행하는 인물이다.

〈귀궁〉과 〈선녀〉에서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해하는 원귀도 문제이지만, 원귀를 만들고 돕는 존재가 더욱 문제이다. 원귀의 배후 존재로 인해 일반적인 오컬트 장르에서 대립구조와는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이채영은 영화 〈검은사제들〉과 〈곡성〉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한국의 오컬트 영화에서도 '퇴마 주체(protagonist)-빙의된 인물-악 또는 귀신(antagonist)'의 서양 오컬트의 인물 구도를 '구원자-희생자-가해자'로 재현하고 있다 하였다.[15] 염은희 TV 드라마 〈손 the guest〉와 〈악귀〉를 중심으로 살폈다. TV 드라마 장르이므로 등장인물 간의 관계성이 영화보다 확장되어 불완전한 3인이 연대를 통해 악귀 퇴치하여, 오컬트 장르의 관습을 계승하며 한국무속과 민간신앙은 한국적 오컬트 장르의 개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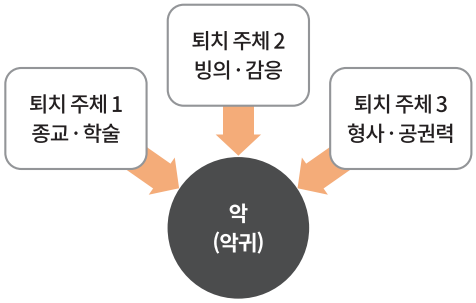

〈그림 1〉 **이채영, 오컬트 영화 〈검은 사제들〉과 〈곡성〉의 인물관계도**

14 맹청은 조선 효종 때 만들어진 맹인을 위한 기구로, 맹인들이 점복·독경 등을 익혔다.

15 이채영, 「영화 〈검은 사제들〉과 〈곡성〉에 나타난 퇴마 소재 스토리텔링 기법과 악의 이미지 연구: 전통 무속 요소와 오컬트 장르 특질의 융합적 재현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74, 중앙어문학회, 2016, 116~117쪽.

16 염원희, 앞의 논문, 15~21쪽.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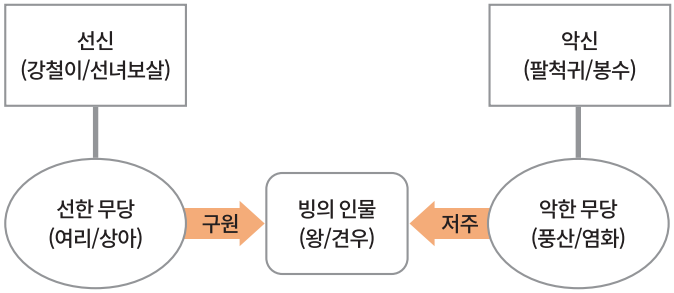



〈그림 2〉 염원희, 오컬트 드라마 〈손 the guest〉와 〈악귀〉의 인물관계도

한국 오컬트 영화인 〈검은 사제들〉과 〈곡성〉에서는 '희생자'을 중심으로 '구원자'와 '가해자'의 대립한다. 이러한 대립은 선과 악의 대립을 의미하며, 선이 악귀를 물리쳐야만 하는 서사를 구성한다. 오컬트 드라마인 〈손 the guest〉와 〈악귀〉도 인물 관계성이 확장되어 '희생자'였던 빙의 · 감응의 대상도 퇴치의 주체가 되어 악귀를 물리친다. 인물의 관계를 변화했지만, 오컬트 장르에서는 악귀를 물리치는 대립 관계는 동일하다.

〈귀궁〉과 〈선녀〉에서는 악귀에게 집중되었던 오컬트 장르적 대립 관계와는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귀궁〉과 〈선녀〉의 대립구조를 정리하면, '선신(강철이/선녀보살)-선한 무당(여리/박상아)-빙의된 인물(왕/배견우)-악한무당(풍산/염화)-악신(팔척귀/봉수)'라 할 수 있다. 빙의된 인물을 중심으로 선신, 선한 무당과 악신, 악한 무당(판수)이 대립한다. 〈귀궁〉에서는 선한 무당과 대립하는 존재가 판수이다. 전통사회에서 무당과 판수가 비가시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여러 주술적 행위를 하는 존재로서 유사한 형상을 지닌다. 〈귀궁〉에서 판수 풍산은 점복뿐만 아니라 악신을 팔척귀를 천지장군이라 부르며, 맹청에 팔척귀를 모시는 신당을 차려서 모시는 존재이다. 풍산은 부적이나 독경, 제물을 바쳐 팔척귀를 모시거나 그 힘을 다룬다.

〈선녀〉에서는 선한 무당과 악한 무당의 대립이 더욱 분명히 표현된다. 특히, 악한 무당 염화와 선한 무당 박상아는 동천장군과 신어머니와 신딸의 관계라는 동일한 형상을 공유하는 존재이다. 염화는 악신을 만들기 위해 산사람 99명을 바치고, 견우를 100번째 제물로 삼으려고 한다. 견우를 제물로 삼고자 벽사부(辟邪符)나 이매망량부(魑魅魍魎符) 등을 사용하여 견우와 견우 가족에게 지속해서 저주를 내리는 행위를 한다.




〈그림 3〉 〈귀궁〉과 〈선녀〉 속 인물관계도

〈귀궁〉과 〈선녀〉에서는 무당을 중심인물로 몸주신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무당은 초능력자나 마녀와 다르다.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시는 몸주신의 영향과 영적인 능력 또한 중요하다. 오컬트 영화에서 퇴마의 주체가 되는 구원자는 주로 가톨릭 사제가 등장하는데, 무당은 가톨릭 사제와 달리 계속해서 몸주신을 모시기 위해 정성을 올리며 다양한 의례와 제물도 바쳐야 한다. 〈귀궁〉에서는 강철이를 몸주신으로 모시고 계속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바치고, 〈선녀〉에서는 박상아가 배견우를 구하기 위해 잠시 자신의 몸에 악귀를 모시자 선녀보살이 박상아를 떠난다. 이뿐만 아니라 악신을 자신의 몸주신으로 모시는 존재들도 등장한다.

〈귀궁〉과 〈선녀〉에서 무당이 중심인물로 활용하여 새로운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무당의 몸주신 개념을 통해 무당을 돕고 영적인 능력을 주는 선신이 형성될 수 있고, 악신을 만들고 조정하여 이득을 얻는 악한 무당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무당과 악신, 선신과 악신, 선한 무당과 악한 무당으로 더 다양한 대립관계가 형성된다. 염화와 봉수는 원작인 웹툰 〈견우와 선녀〉에는 없던 인물로서, 드라마로 각색되면서 새롭게 생긴 존재이다. 악신과 악한 무당의 설정을 통해 드라마의 더욱 다양한 대립관계 형성이 가능해졌다.

www.kci.go.kr

## 3. 천도굿의 기능과 의미

〈귀궁〉과 〈선녀〉에서 악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신을 위한 천도굿을 지내고자 한다. 천도굿이란 망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잘 천도하기 기원하는 굿으로, 망자굿, 사령굿, 씻김굿, 진오귀굿 등으로 불리는 무속의례이다. 천도굿은 망자의 혼을 없애는 의례가 아니다. 망자의 원한(怨恨)을 풀고, 이승에서 삶을 잘 마무리하여 저승으로 보내려는 의례이다.

오컬트 영화에서는 신과 악마가 구분되는 기독교의 이분법적 상상력을 근거하므로 악마는 절대적 타자이다.[17] 때문에 악마·귀신은 엑소시즘(Exorcism) 즉, 퇴마(退魔)나 구마(驅魔)의 대상이다.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제거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컬트의 구원자는 퇴마의식을 진행해야 한다. 염원희는 〈손 the guest〉와 〈악귀〉에 등장하는 인격화된 악은 절대적 타자라기보다는 한국 민간신앙적 존재이기 때문에 퇴마라는 표현 대신 민간신앙에서 귀신을 쫓을 때 쓰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퇴치(退治)라는 용어를 사용했다.[18] 그러나 악신을 물리쳐서 없애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동일하다.

〈귀궁〉과 〈선녀〉에서는 퇴마의식이나 벽사의식(辟邪儀式) 아니라 악신을 위해 천도굿을 지낸다. 천도굿을 지내기 위해서는 악신이 된 존재들의 원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들의 이름과 죽음의 순간을 밝혀야지만 그들의 원한을 풀 수 있다. 악신이 된 팔척귀나 봉수뿐만 아니라 개별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여러 원귀나 악귀도 각각의 사연과 원한을 알아내어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귀궁〉과 〈선녀〉 속 악신은 오컬트 장르와 같이 퇴치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귀궁〉에서 여리는 할머니 넙덕의 무구를 얻고, 화덕차사에 접신하여 팔척귀를 저승으로 데려가려는 의식을 진행한다. 하지만 풍산이 독경과 주술로 팔척귀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서 팔척귀를 물리치는 데 실패한다. 강철이 자신의 목숨과 여의주를 희생하여 팔척귀를 물리친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원한으로 팔척귀가 된 천금휘와 선대 왕을 위해 희생당한 용담골 마을 사람을 위한 천도굿을 지낸다.

여리가 팔척귀를 물리치기 위해 화덕차사를 접신하거나 칼과 사슬로 악귀를 저지하는 행위는 실제 무속의례에서는 없는 행위이다. 저승차사가 혼을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인식을 구현한 장면으로 파악된다. 팔척귀는 천금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천도굿을 통해 왕의 사죄를 받고 원한을 풀고 천도된다. 천도굿을 통해서 악귀는 퇴마·퇴치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 되고, 산 자와 죽은 자가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천도굿을 통해 원한을 풀고 천도 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림 4〉 〈귀궁〉 최종화 中 악귀 퇴치 장면

〈그림 5〉 〈귀궁〉 최종화 中 천도굿 장면

〈선녀〉에서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한 염화가 자신을 희생하여 악귀를 없애기 위한 의례를 한다. 실제 무속의례와는 연관성이 없고, 무슨 의례인지도 거론되지 않는

17 황혜진, 「한국형 오컬트 영화의 가능성」, 『공연과 리뷰』 21(4), 현대미학사 180쪽.

18 염원희, 앞의 논문, 18쪽.

www.kci.go.kr

다. 다만, 악귀를 퇴치하기 위한 목적의 의례로만 인식된다. 그러다 박상아가 퇴마 의례를 중단하고, 견우와 함께 악귀가 원한을 갖게 된 사연을 파악하고, 진짜 이름을 찾아준다. 진짜 이름을 찾은 악귀는 원한을 풀고, 박상아는 악귀를 위한 천도굿을 지낸다. 〈선녀〉에서도 악귀는 퇴치에 대상에서 원한을 찾아 풀어주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림 6〉 〈선녀〉 최종화 中 악귀 퇴치 장면

〈그림 7〉 〈선녀〉 최종화 中 천도굿 장면

〈귀궁〉과 〈선녀〉에서 천도굿이 실제 천도굿의 행위를 모방하지만, 실제 천도굿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드라마 속에서 천도굿은 원귀나 악귀는 본래 우리와 함께 살던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기반으로 한다. 원한이 남은 죽음의 이유와 과정을 알아내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공감(Empathy)의 과정이다.[19] 공감(Empathy)의 어원은 en-(안으로) + pathos(감정, 고통)으로 타인의 감정, 고통을 내 것처럼 이해하는 동감의 상태를 의미한다. 무당은 굿판에서 원혼과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적 공감을 통해 치유와 위안을 주는 존재이다.

pathos(감정, 고통)를 어원으로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사이코패스(psychopath)이다. 타인의 감정·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을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선한 무당이 공감을 통해 원한을 풀어주는 존재라면, 악한 무당은 저주와 주술로 악신을 만드는 사이코패스적인 존재이다. 김주윤은 영화에서 무당을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륜성이 결여된 존재로 재현할 때 관객은 무속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무당은 괴물과 외계인처럼 인간이 아니며 절대적인 악으로 치환되어 죄책감 없이 폭력성을 분출하기도 하고 거꾸로 폭력적으로 처단당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된다고 설명하였다.[20]

현재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이코패스이다. 사이코패스 캐릭터는 인간에 대한 회의와 불신감, 사회에 대한 불안심리가 만연한 데서 기인한다.[21] 우리 내부에 있으나 사회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당에 대한 불신의 시선은 잠깐의 현상이 아니라 한국 무당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이다.[22]

무당이란 존재를 중요 인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불안과 불신을 가져오는 사이코패스 인물을 형상화할 수 있고, 이러한 존재는 절대적인 악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동시에 무당은 공감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인 사이코패스, 그리고 사회를 통합하는 존재가 무당이란 형상의 양

19 홍태한은 굿판의 감정적 동조 상태를 심퍼시(sympathy)와 엠퍼시(emphathy)를 구분하여 설명했다. 심퍼시는 동정으로 번역되며 상대방이 놓인 처지를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공감, 엠퍼시는 심퍼시에 더 나아가 상대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인식하는 동감으로 설명한 바 있다. 홍태한, 「사혼굿 〈혼사거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한국무속학』 50, 한국무속학회, 2025, 177~178쪽.

20 김주윤, 「한국무속의 영화적 재현: 역사와 시각」,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8, 30쪽.

21 이화정, 「스릴러 장르와 사이코패스 캐릭터의 관계 연구: 최근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6쪽.

22 최종성은 "한국의 무당이 고통을 달래주고 복을 빌어주는 선량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사한 술법으로 대중을 미혹시키는 사회악의 표본이자 문화를 오염시키는 근원으로도 다루어져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 살해당한 무당들의 역사를 더듬어보면 이들은 항상 저주와 반역과 결부 지어졌"다고 하였다(최종성, 「어둠 속의 무속: 저주와 반역」, 『한국무속학』 27, 한국무속학회, 2013, 7~34쪽).

www.kci.go.kr

면성으로 공존하고 있다.

## 4. 나가며

이 글은 무당을 중심인물로 삼지만, 오컬트가 아닌 장르로 활용한 TV 드라마 〈귀궁〉과 〈견우와 선녀〉를 중심으로 미디어 속에서 무당이란 존재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의미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무당의 몸주신의 개념을 통해, 종교 사제자가 악마에 빙의된 희생자를 구하는 단순한 오컬트 플롯에서 벗어나 선신과 악신, 악신과 무당, 선한 무당과 악한 무당 등 더 복잡한 대립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무당은 퇴마의식이 아닌 천도굿이란 무속의례를 통해 악귀·악신의 원한을 풀어주고 저승으로 천도시킨다. TV 드라마 〈귀궁〉과 〈견우와 선녀〉에서 무당은 공감이란 능력을 통해 악귀·악신을 절대적 타자화시키지 않고 본래 우리와 함께 살던 평범한 인간이었음 상기시킨다. 동시에 저주와 주술로 악귀·악신을 만드는 무당은 사이코패스적인 인물로 무속에 대한 공포감을 내포한 존재로 그려진다. 그런데 악한 무당의 불안과 불신이라는 반사회적 측면을 극복하고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는 존재도 무당이라는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도 무속이 실제 모습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의례 일부를 가져와 맥락에 맞지 않게 이미지적으로만 소비하기도 하고, 무속의 일부 개념을 단편적으로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창작이 가미되는 대중 예술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다양한 시도이다. 무속과 무당을 서양식 오컬트에 끼워 맞춰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퇴마가 아닌 해원(解冤)이라는 무속의 고유한 개념까지 그려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무속 본질이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시발점의 작품으로 TV 드라마 〈귀궁〉과 〈견우와 선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서양식 오컬트 장르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어 선과 악이 절대적으로 구분된다. 하느님이라는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고, 악은 절대적 선에 대립하는 관계로만 설정된다. 악은 절대 타협될 수 없는 존재이고, 악은 패배하고 소멸하여야 할 존재이다. 이 때문에 서양식 오컬드 장르에서 선과 악은 단선적으로 대립하고, 선이 악 퇴마하여 심판하는 구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선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다. '악'은 절대적인 사탄이나 악마를 의미하지 않는다. 악은 멸절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선과 악은 공존하거나 양면적인 개념일 수 있고, 해원을 통해서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무속은 더욱 다양한 대립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귀궁〉과 〈견우와 선녀〉 무속을 단적으로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 무당은 공감과 해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모든 무당이 선한 존재는 아니다. 비가시적인 힘을 통해 극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 무속에 대한 믿음과 불신의 시선이 함께 공존할 때, 오히려 왜곡되지 않게 무속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귀궁〉, 윤수정 극본, 윤성식 · 김지연 연출, SBS 방영(2025.4.18~2025.6.7), 총 16부작.

〈견우와 선녀〉, 양지훈 극본, 김용완 · 정우식 연출, tvN 방영(2025.6.23~2025.7.29), 총 12부작.

### 2. 단행본 및 논문

강명주 · 이찬욱, 「무속 신화의 현대적 수용과 재구: 웹툰 〈묘진전〉의 사례를 중신으로」, 『어문논집』 37, 중앙어문학회, 2018.

강혜진, 「〈귀궁〉, 〈K-pop 데몬 헌터스〉로 본 K-판타지의 무속 활용 경향」, 『Journal of Korean Culture』 70,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5.

김병선, 「김기덕 영화에 나타나는 무속적 상징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0, 한국언론정보학회, 2010.

김주윤, 「한국무속의 영화적 재현: 역사와 시각」,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8.

김지아,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영화 내 희생제의 서사의 변용과 한국형 오컬트의 무속적 재구성: 영화 〈파묘〉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87, 한국문학연구학회, 2025.

김진철, 「웹툰의 제주신화 수용 양상」, 『영주어문』 31, 영주어문학회, 2015.

김호성, 「드라마 〈미남당〉 속 가짜 무당의 형상과 의의」, 『한국무속학』 50, 한국무속학회, 2025.

박향아, 「〈신과 함께: 이승편〉에 나타난 서사무가 활용 양상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백소연, 「〈손 the guest〉에 나타난 악의 재현 방식과 그 의미」, 『어문논집』 80, 중앙어문학회, 2019.

_____, 「폭력의 귀환과 기억의 윤리: 드라마 〈귀궁〉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113,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25.

변안식, 「우리 영화: 무속을 통해 표출된 '한'과 '원'의 카타르시스」, 『영화평론』 17, 한국영화평론가협회, 2005.

변지선, 「대중매체에 나타난 무속의 문화콘텐츠 활용양상 연구: TV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대상으로」, 『문화와 융합』 37, 한국문화융합학회, 2015.

신광철, 「무속 소재 영화와 무녀 캐릭터」, 『역사민속학』 18, 역사민속학회, 2004.

신양섭, 「임권택 영화 속의 무속적 세계관」, 『한국학연구』 60,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7.

염원희, 「한국 오컬트 드라마의 악의 재현과 대항의 논리: 〈손 the guest〉(2018)와 〈악귀〉(2023)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8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3.

_____, 「오컬트 영화 〈파묘〉의 무속의례 구현과 신명풀이적 성격」, 『한국학연구』 9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25.

유재응 · 이현경, 「한국 오컬트 영화 속 무당과 굿의 재현 양상 연구: 〈검은 사제들〉(2015), 〈곡성〉(2016), 〈장산범〉(2017)을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7,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유형동, 「웹툰 〈쌍갑포차〉에 재현된 무속신화적 세계인식」, 『문화와 융합』 41,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윤준섭, 「무속의례 '뒷전'의 관점에서 본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 『한국문학과 예술』 40,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_____, 「함경도 무속신화 〈감천〉을 통해 본 TV 드라마 〈악귀〉의 의미: 유아살해서사와 민속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8, 국어국문학회, 2024.

이경화, 「웹툰 〈어둠이 걷힌 자리엔〉의 민간신앙 활용 양상과 그 의미」, 『어문논집』 91, 민족어문학회, 2021.

이정재, 「드라마 왕꽃선녀님과 현대 무속문화의 이해: 무속드라마 선호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속과 문화』 10,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5.

이채영, 「영화 〈검은 사제들〉과 〈곡성〉에 나타난 퇴마 소재 스토리텔링 기법과 악의 이미지 연구: 전통 무속 요소와 오컬트 장르 특질의 융합적 재현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4, 중앙어문학회, 2016,

이화정, 「스릴러 장르와 사이코패스 캐릭터의 관계 연구: 최근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조은아, 「한국영화 〈곡성〉과 〈사바하〉 속에 드러나는 오컬트의 장르적 특성」,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9.

최종성, 「어둠 속의 무속 : 저주와 반역」, 『한국무속학』 27, 한국무속학회, 2013.

홍태한, 「사혼굿 〈혼사거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한국무속학』 50, 한국무속학회, 2025

황혜진, 「한국형 오컬트 영화의 가능성」, 『공연과 리뷰』 21(4), 현대미학사 180쪽.


www.kci.go.kr

**Abstract**

## The Image and Application of Shamans in TV Dramas

Focusing on SBS "The Ghost Palace(Guigung)"(2025) and tvN' "Gyeonwoo and the Fairy"(2025)

Kim, Ho-Sung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representation and narrative functions of shamans and shamanism in two 2025 Korean television dramas, SBS "The Ghost Palace"(Guigung) and tvN "Gyeonyu and the Fairy". While earlier Korean occult content often treated shamanism as a conventional horror device, these dramas reposition the shaman as a central figure and broaden the scope of its symbolic meaning. The analysis focuses on characterization and ritual function. First, both dramas employ the concept of the Momjusin(guardian deity) to structure conflict between a benevolent shaman who resolves spiritual crises and a malevolent shaman who manipulates harmful spirits for personal gain. Second, both foreground Cheondogut, a ritual for guiding the dead, rather than Western-style exorcism. Spirits are depicted not as objects of elimination but as beings whose forgotten histories and unresolved resentment must be addressed. These dramas ultimately present the shaman as both a source of social anxiety and a mediator of healing, reconciliation, and social integration.

**Keywords** Shaman(Mudang), Shamanism, K-Drama, "The Ghost Palace"(Guigung), "Gyeonyu and the Fairy", Guardian Deity(Momjusin), Cheondo-gut, Resolution of Resentment(Haewon), Empathy

www.kci.go.kr

이 논문은 2026년 3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4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